



제목	Mevlana Jalaluddin Rumi's Forgotten Messag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Sufi Kitap
발행일	2017. 5. 1.
저자	Shems Friedlander
출판도시	Istanbul
페이지수	256
ISBN 또는 ISSN	978-6059778459

내용 요약

이 책의 저자 프리들랜더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러한 기억 상실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루미가 주는 교훈을 일상생활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결부시키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슬람을 테러리즘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슬람 세계와 종교, 무슬림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프리들랜더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루미의 예언적인 전통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이다. 프리들랜더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대중적인 시인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루미가 정작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오해를 받고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이슬람에 대한 세계의 편견과 왜곡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루미의 시행은 하나하나가 교훈이고 사랑의 편지이다.(Each verse of the Mesnevi is a teaching and a love letter.)” 비록 작은 글씨이지만 제목 위에 놓여있는 이 구절이 저자의 루미와 루미 시에 대한 생각을 잘 대변한다. 루미의 작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의 전달자가 있다. 루미 작품 전반에 그 징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루미에 대한 오해와 이슬람에 대한 편견 등으로 그 메시지가 잘 표현되거나 전달되지 않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을 깨울 수 있는 ‘잊혀진 메시지’라고 부른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루미를 읽으면서 수피즘과 이슬람에 대한 루미의 메시지를 도외시키고자 하는 반면 프리들랜더는 오히려 그를 수피즘과 이슬람의 심장부에 위치시킨다.